

LG '트롬건조기 스팀 씩큐' 5월 판매 비중 70%

등록 2020.05.21 11:00:00



[서울=뉴스시스] 박민석 기자 = LG전자가 '트루스팀' 기술을 적용한 트롬 건조기 스팀 씩큐(STEAM ThinQ)를 본격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LG전자 제공) 2020.03.05. phot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최희정 기자 = LG전자는 이달 자사 건조기 국내 전체 판매량 가운데 '트롬 건조기 스팀 씩큐'의 판매량 비중이 70%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트롬건조기 스팀 씩큐는 LG건조기 판매량 비중이 출시 첫 달인 3월에 50%를 기록한 데 이어 4월 65%, 5월 70%를 차지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건강과 위생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팀 가전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받은 '트루스팀'을 탑재한 LG 트롬 건조기 스팀 씩큐는 스팀을 이용해 탈취와 살균은 물론 주름 완화까지 해준다.

3가지 스팀 특화코스는 젖은 빨래를 건조할 때 외에도 옷과 침구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코스들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시험을 통해 땀냄새 등 옷감에 밴 냄새를 99% 제거하는 탈취성능을 검증받았다.

'스팀 리프레쉬 코스'는 셔츠와 같은 소량의 옷을 따로 세탁하지 않고도 옷감의 냄새를 줄이고 가벼운 구김도 완화시킨다. '침 구털기 코스'의 스팀 옵션은 이불을 빨지 않고도 탈취할 수 있고 집먼지 진드기도 없애준다. '패딩 리프레쉬 코스'에서 스팀을 적용하면 자주 빨기 어려운 패딩의류의 냄새를 줄여주고 볼륨감도 복원된다.

이 제품의 스팀 살균코스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실험결과 유해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간균을 99.99% 제거한다.

히터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저온제습 방식으로 건조하는 4세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을 비롯해 주기적으로 직접 세척해야 하는 수동세척 방식과 달리 건조 코스를 사용할 때마다 알아서 물로 씻어주는 편리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장착하는 등 LG 트롬 건조기만의 장점을 갖고 있다.

LG 트롬 건조기 스팀 썬큐는 와이파이(Wi-Fi)를 이용해 LG 썬큐(LG ThinQ) 앱에 연결하면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페어링 기능은 LG 썬큐 앱과 연결된 세탁기로부터 세탁 코스 정보를 받아 건조 코스를 알아서 설정해 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